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16

금당산과 풍암정

최혁 지음

이야기 도움

정인서

자료 도움

김정호 / 김종

노성태 / 조광철

사진도움

백계남 / 최의정



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한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금당산과 풍암정

■ 풍암동(楓巖洞)과 금당산(金塘山)

해운이는 금당산에 올라 주변의 경치를 살핀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풍암동은 ‘광주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의 풍암동은 예전에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아파트가 우뚝 솟아 옛 모습은 거의 찾을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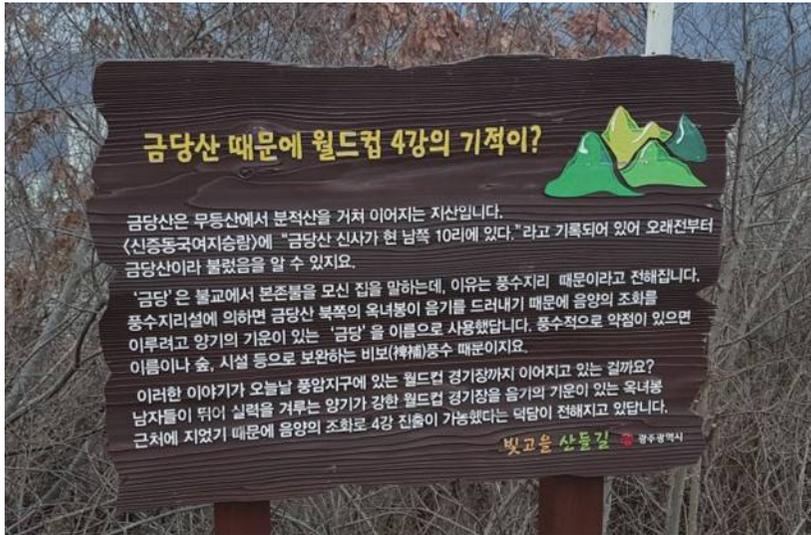
산과 밭, 개울, 마을이 있던 곳이 대규모 택지로 바뀐 것은 풍암동택지개발사업 때문이다. 풍암동택지개발사업은 지금의 서구 풍암동을 비롯 금호동, 매월동 남구 주월동 일원까지를 포함해 2,55,769제곱미터(621,870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 황새정에서 바라본 금당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정상이고 왼쪽의 낮은 봉우리가 옥녀봉이다.

사업이었다. 1993년에 시작돼 2001년에 마무리됐다.

풍암동은 풍암택지개발지구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서 지금은 1만3천여 세대에 4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금의 금호1차 아파트와 한국아텔리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은 예전에 신암마을이 있었다. 마을이 있던 흔적은 금호1차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암마을을 지켜주던 당산나무가



▲ 금당산 안내문

이제는 풍암동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이는 매년 정월 보름이면 이곳에서 치러지는 당산제에 참석하곤 했다.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농악대가 팽과리, 징, 장구 소리로 박자를 맞추면 어깨가 절로 들썩었다. 마을 어른이 제를 지내고 나면 달집태우기를 하곤 했다.

신암마을에는 천수답이 많았다.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됐다.

그래서 풍년과 마을사람들이 나쁜 일 당하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이 있었다. 신암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당산에는 귀목나무를, 할머니 당산에는 팽나무를 심었다. 택지개발공사 과정에서 할아버지 당산의 귀목은 치워져 버렸다. 공사 관계자들은 할머니당산의 팽나무도 없애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당산나무를 5m 정도 옮겨 다시 심었다.

풍암동에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이 뽁뽁이 들어서 있어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략적으로 헤아려보면 금당산 아래 신암마을은 웃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웃마을은 지금의 풍암동 천주교성당 일대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랫마을은 지금의 금호1차아파트와 주은모아아파트 일대에 걸쳐 있었다고 한다. 금당산 아래쪽에는 여러 개의 샘이 있었다. 신암마을은 마을 뒷산인 금당산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신암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500여년 전 김제 김씨 또는 김녕 김씨 일족이 들어와 터를 잡았다고 한다. 풍암동 운리(雲裏)마을은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왜란 당시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활동했던 회재(懷濟) 박광옥(朴光玉, 1526~1593)의 선조인 음성 박씨가 입향조(入鄕祖)로 알려졌다.

풍암동을 품에 안고 있는 금당산은 높이가 304m에 불과하지만 계곡이 깊고 수맥이 풍부해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금당산 자락에는 천동샘, 따피동샘, 말샘, 통샘 등 여러 샘이 있었다. 해운이는 이런 샘을 좋아한다. 마치 땅 속에 갇혀있다가 비집고 올라오는 물줄기가 생명의 움푹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생명수를 마시는 느낌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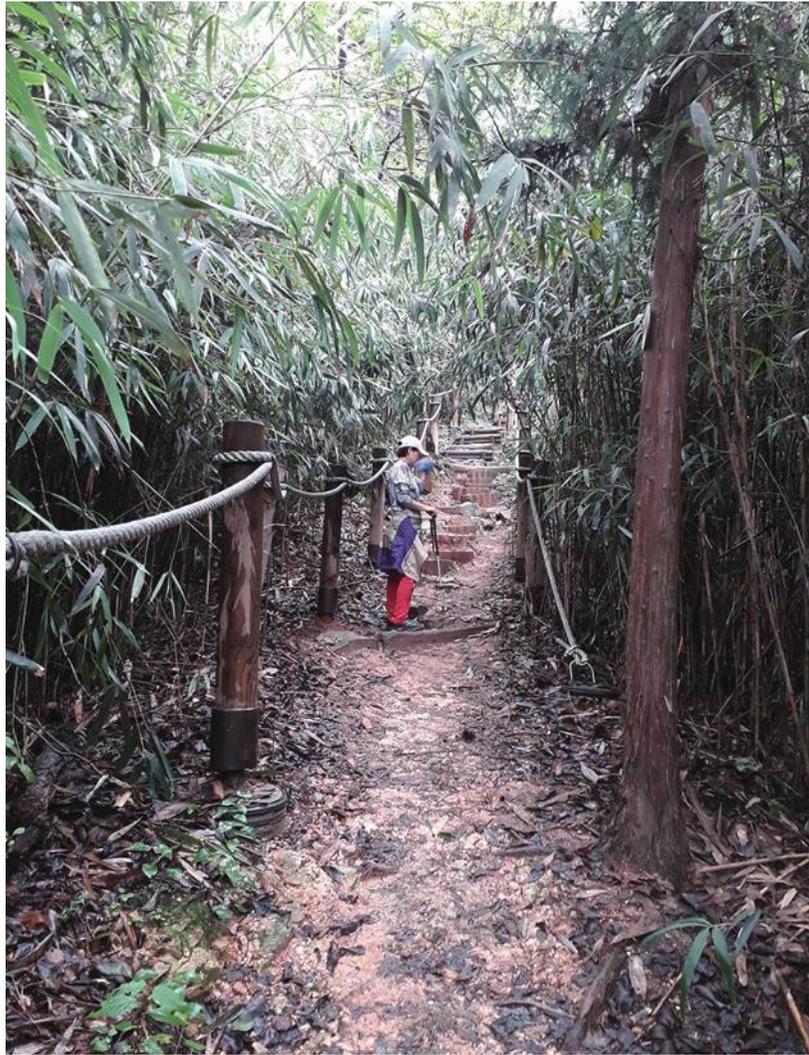
예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없어 신암마을 주민들은 물동이를 지고 와 가까운 곳에 있는 샘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했다. 또 샘가에서 빨래를 했다. 통샘은 지금의 풍암동 성당 인근에, 말샘은 금호1차아파트 자리에 있던 샘이다. 지금은 모두 건물에 묻혀버렸다. 해운이는 예전처럼 생명의 느낌을 찾을 수 없어 무척 아쉬웠다.

금당산은 주월동에서 마재마을, 금호동 일대까지를 병풍처럼



▲ 금당산 안내문

껴안고 있는 산이다. 서북쪽으로 풍암·금호동과 풍암저수지, 월드컵경기장을 품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송암공단과 백마산, 광주대학교를 두고 있다. 북쪽을 제외하고 동서남쪽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자리하고 있으니 자연 금당산은 시민들이 즐겨 오르는 휴식처가 되고 있다. 금당산에는 4.6km에 달하는 등산로와 4개 코스의 순환 산책로(둘레길)가 마련돼 있어 편하고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다.



▲ 금당산 돌레길

■ 금당산

해온이는 금당산 이름이 신기했다. 마을 어른에게 물었다. 풍암동 금당산의 이름 뜻은 ‘금당(金堂)을 모시는 산’이라고 한다. 금당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을 뜻한다는 것이다. 금당이라는 명칭은 전당 안을 금색으로 칠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색의 본존불을 내부에 모신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산 이름이 왜 금당산이라 지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쨌든 해온이는 산 전체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른 어른은 이렇게 설명했다. 해온이는 귀를 쫑긋이 하고 들었다. 풍암동에서 바라보는 금당산 반대쪽 기슭에 옥천사(玉泉寺)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과 관련해서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옥천사는 1940년에 남무길이 창건한 절로 알려졌다. 당초는 현 동성고 자리인 진월동 201-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었으나 1980년 지금의 자리인 진월동 398-1번지 일대로 옮겨졌다.

이는 중창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옥천사의 석등이 조선 후기에



▲ 금당산 옥천사

만들어진 것으로 봐서 옥천사는 조선 중·후기부터 있었던 절로 보인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금당산신사가 현 남쪽 10리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옥천사 창건 시기를 조선중기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국내의 많은 산이 불교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다. 금당산 역시 그러하다. 다만

특이한 것은 오늘날 금당산의 당자를 연못 당(塘)자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誤記)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 또한 알 길이 없다. 풍수지리설에서 금당산은 음기가 센 곳이다. 옥녀봉을 중심으로 해 드센 음기를 잠재우기 위해 옥천사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금당산 옥녀봉과 김덕령장군

금당산과 관련해 가장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은 옥녀봉(玉女峰)이다. 국내에는 옥녀봉이라는 이름을 지닌 산봉우리들이 꽤 있다. 대부분 옥녀봉이라는 장소는 정절이나 효행, 권선징악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억압된 성의식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규정하는 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다.

금당산 옥녀봉의 ‘옥녀’는 충장공(忠壯公) 김덕령 의병장(金德齡, 1567~1596)과 관련된 인물이다. 성리학자였던 김덕령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분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담양에서 의병 5천명을 모아 출정했다. 많은

공을 세워 당시 전주에 내려와 있던 광해군으로부터 익호장군(翼虎將軍)의 군호를 받았다.

1596년 이몽학의 반란을 토벌했으나 김덕령을 시기한 사람들의 무고로 투옥됐다. 선조는 나라가 위급한 때 목숨을 바쳐 충성한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명성을 시기해 김덕령을 살려야 한다는 조정대신의 의견을 무시했다. 김덕령은 모진 고문을 받아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 김덕령은 현종 2년에 억울함이 신원돼 관직이 복구됐다. 1788년 정조는 김덕령 장군의 충효를 기리고자 사당을 건립하여 배향토록 했다. 그 사당이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있는 충장사(忠壯祠)다.

김덕령 의병장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그는 민간인의 신앙대상이 됐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촉나라의 영웅 관우가 오나라 손권으로부터 목숨을 빼앗기자 백성들이 그를 기리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호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김덕령 의병장과 관련된 민간설화가 생겨났다.

김덕령 의병장을 다룬 문헌설화는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동야취집(東野彙輯)>·<풍암집화(楓巖輯話)>·<대동기문(大東奇



▲ 금당산에서 바라본 무등산. 백계남 사진

聞))등이다. 해온이는 김덕령 장군의 설화가 무척 궁금했다.

스승 성훈 밑에서 김덕령과 함께 공부한 이귀는 김덕령의 양쪽 겨드랑이에 호랑이 2마리가 있어 김덕령이 호랑이처럼 날쌔고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그와 관련된 설화는 ‘김덕령 장군이 말을 타고 무등산을 날아다녔으며 무등산에서 바위를 던지면 광주 서창마을에 떨어졌다’는 식의 그의 용력이 남달랐다는 내용이다.

해운이는 특히 금당선 옥녀봉에 얽힌 설화가 재미있었다. 설화에 따르면 옥녀는 김덕령 의병장과 연인 사이였다. 그들의 인연은 김덕령 의병장이 무등산에서 말을 타고 무예를 닦다가 잠시 쉬는 참에 서쪽에 있는 금당산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김덕령은 그 처녀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했다. 알고 보니 금당산 신암마을에 사는 처녀가 금당산에 올라 치성을 드리다 내려가곤 했다는 것이다. 김덕령이 무등산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처녀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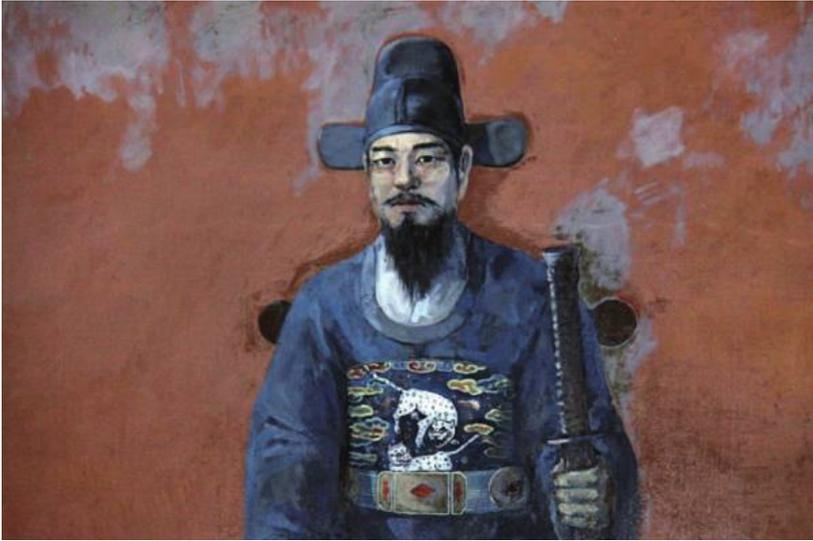
김덕령은 그 처녀를 만나기 위해 말을 타고 무등산에서 뛰어올랐다. 말은 허공을 차고 올라가 금당산 정상에 내렸다. 금당산에는 바위에 말발굽 모양처럼 생긴 구멍이 패여 진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장수바위’라고 부른다. 그 뒤에 김덕령은 자주 금당산을 찾아 옥녀와 사랑을 나눴다. 그러나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 자주 싸움터로 가야 했고 나중에는 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는 바람에 옥녀와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믿거나말거나 이야기다. 김덕령 장군을 흠모했던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충신을 몰라본 왕이나 영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간신배들에 대한 반항심이 만들어낸 설화이기에 ‘김덕령+옥녀 커플’ 사랑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옥녀라는 처녀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금당산은 옥녀의 음기가 매우 센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 풍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돼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이때 분양률이 매우 저조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풍암동은 옥녀봉의 음기가 너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어서 남자들의 양기가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옥녀가 남자들의 양기를 모두 빨아들여, 남자들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카더라’식 야담(野談)은 한때 ‘사모님들’이 풍암동 이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양기를 누르는 옥녀의 음기이야기’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로 ‘정리’가 됐다. 풍암동 남자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다. 사모님들 역시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래서 옥녀와 관련된 ‘풍암동 괴담’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풍암동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다.



▲ 김덕령장군 스틸화. 2013년 도드리 창작국악단 김덕령 장군 추모음악회 스틸

신암마을은 예전에 ‘씨받이 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음기가 센 옥녀봉의 기운을 받아 아들을 낳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녀가 있었을 법하다. 예전에는 정실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씨받이를 통해 후손을 보곤 했다. 금당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나물을 쪄서 처녀나 여자라면 매우 건강했을 것이다. 신암마을 여인네들이 건강하고 활달해 간혹 씨받이로

정해지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김덕령 장군과 옥녀의 사랑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하고 연극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구문화원은 2018년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하나로 대본을 만들고 연극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프로그램인 ‘나도 극작가! 나도 연기자’에는 시민들이 참가해 ‘김덕령과 옥녀 러브스토리’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금당산에는 옥녀정이 있다. 정자에는 옥녀정과 옥녀봉대(玉女峰臺), 두 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옥녀정은 등산로에서 10여m 비켜 자리하고 있는데 잠시 쉬어가라 손짓하는 모양새다. 옥녀정의 마루는 10여명의 장정이 둘러앉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 옥녀의 무릎인양 여기고 잠시 누웠다가도 무방하고 그냥 앉아 쉬었다가도 좋다. 옥녀정에는 광주의 명필 학정(鶴亭) 이돈흥(李敦興)이 글씨를 쓰고, 목연(木然) 박원식(朴源植)이 각을 뜬 ‘옥녀봉운’(玉女峰韻)이 걸려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참으로 아름답고 품위로우나 眩亂(현란)하지 않는 옥이여/부드러이 감싸안으나濁(탁)하지 않은 여인이여/ 늘 無等(무등)을 우러러여기



▲ 옥녀봉대 현판(위), 옥녀정에 걸려 있는 옥녀봉운 현판(아래). 학정 선생이 글씨를 쓰고 목연 선생이 각을 뜬 것이다.

빛고을사람 저 등(등)없는 등(등)이 되어/온 세상 無等으로 일깨워 주기를 念願(염원)하옵는 봉이여.’

■ 풍암정(楓巖亭)과 풍암호수

광주 서구에는 ‘서구 8경’이 있다. 자연풍광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멋진 풍경이 자리하고 8곳을 골라 ‘서구 8경’이라 이름 지었다. 해운이는 서구 8경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봤다. 제1경 만귀정, 제2경 금당산, 제3경 풍암호수, 제4경 서창들녘낙조, 제5경 용두동 지식묘, 제6경 양동시장, 제7경 운천사, 제8경 5.18기념공원 등이다.

금당산에는 여러 봉우리들이 있다. 풍암동 초입인 원광대 한방병원 쪽의 산봉우리가 옥녀봉이다. 정상에 오른 뒤 서쪽으로 내려서 두 개의 봉우리를 넘으면 황새정이 자리하고 있다. 황새정에서 10여분 정도를 걸어가면 금당산 끝자락에 풍암정이 숨은 듯 고개를 내밀고 있다. 숲 그늘에 자리하고 있는 풍암정은 매우 아름답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암호수의 풍경은 더 아름답다. 이곳은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라 해도 될성 싶다.

옛사람들은 정자를 지을 때 호수나 계곡 등 물이 있는 곳을 골랐다.



▲ 금당정과 금당정에서 바라보이는 풍암저수지

지금의 풍암정은 풍암저수지를 품고 있다. 서로를 품고 있는 풍암정과 풍암호수는 한 몸이다. 지금의 풍암정은 1999년 12월에 지어졌다. 풍암저수지는 신암·운리마을 일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1956년 축조됐다. 농업용 저수지다. 시기별로 순서를 따지자면 외형적으로는 풍암저수지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에 풍암정이 세워진 셈이다. 예전에는 풍암정 아래로 계곡물이 흘러가는, 정자와 물이 함께 있었던 풍경이 펼쳐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지형을 살펴보면 금당산 계곡의 물줄기가 풍암정 앞을 지나 지금의 회재로 일대에 있었을 계곡으로

흘러가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회재로는 회재 박광옥 선생의 호를 따와서 붙인 도로 이름이다. 예전에 계곡이나 논두렁, 들길이었다.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제법 큰 물줄기를 이뤄 극락천 일대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계곡 앞에 위치한 금당산 자락은 정자가 들어서는 것에 적당한 곳이었다. 지금 정자는 불과 20년 전에 세워졌지만 그 이전에도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재 박광옥 선생이 낙향한 뒤 남긴 시에는 산과 물이 등장하고 있다. 그 산과 물은 지금의 광주지역 곳곳에 있는 것들을 총괄한 이미지이거나 혹은 매월동, 풍암동 일대 개금산과 금당산, 그리고 매월동의 개산방죽(전평제), 금당산 앞 계곡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산방죽(介山防築)은 회재 박광옥 선생이 그의 나이 43세 때인 1568년 당시 나주 선도면(船道面) 개산(蓋山), 현재의 매월동에서 살면서 매월과 벽진 마을 주민들의 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저수지다. 둑을 쌓고 개산 남쪽의 물을 끌어들여 저수지를 만든 다음 천수답인 논에 물을 댔다. 개산방죽이 생겨나면서 매월·벽진 마을 주민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해운이는 하나 궁금한 게 있었다. 마을 이름은 개산(蓋山)인데 방죽 이름은 개산(介山)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방죽이름을 한자 표기 하면서 마을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적은 것인지, 산은 덮을 개(蓋)이지만 방죽은 양측 사이에서 돕는다는 의미로 끼일 개(介)를 쓴 것인지 말이다. 뭐 어떤 의미이든 오늘날 부르고 있는 전평호수보다는 개산호수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회재 선생은 개산송당(蓋山松堂)을 지어 문학생들을 가르쳤고 개산방죽에 수월정(水月亭)을 지어 이곳에서 지인들과 교류를 나누곤 했다. 가끔씩 이곳 경치를 바라보며 시 한 수 읊기에 충분했으리라 여겨진다.

회재 선생이 노래한 산과 물은 무등산과 금당산, 영산강과 극락강 등 선생이 쉽게 대할 수 있는 곳일 수 있다. 개산방죽과 수월정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회재 선생이 광주읍성으로 들어가려면 금당산 밑을 지나가야 했다. 금당산의 산세가 좋고 계곡물 또한 넉넉하니 가끔은 금당산 정자에 올라 지친 심신을 달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재가 노래했던 ‘산속 정자’는 ‘금당산 풍암정’일 수도 있다. 물고기가 빠금대는 수면은 풍암정 앞 계곡일 수도 있고



▲ 풍암정 현판

극락강일 수도 있다. 사실,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는 것은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운이는 오늘날 우리가 지나가는 회재로와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자리한 풍암정, 풍암정을 품고 있는 금당산의 어제를 조금이라도 헤아려보고,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삶을 반추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풍암동 금당산에서 선인들의 자취와 옛 모습을 헤아려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